

#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입례 / 내 마음 다해 / 지금은 엘리야때처럼 / 밤이나 낮이나 / 부르신 곳에서	다같이
대표기도		조학영
*성경봉독	눅 19:28-40	김윤희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김상범 전도사
응답찬양	호산나 / 주 신실하심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전도사
성찬	집례: 김준석 목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다같이
*권면과 기도		김상범 전도사

##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 응답찬양

### 호산나/ 주 신실하심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주를 보네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눅 19:28-40)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29 예수께서 올리브 산 근처 벳 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30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쪽 마을로 가거라. 그 마을에 들러서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때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31 누가 ‘왜 풀어서 가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라.” 32 보낸 사람은 사람들이 먼저 마을로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었습니다. 33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나귀 주인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새끼 나귀를 푸는 거요?” 34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35 그들은 예수께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겼옷을 던져 나귀 등에 얹고 예수께서 타시도록 했습니다. 36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길 위에 자기들의 겼옷을 깔아 드렸습니다. 37 예수께서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온 무리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38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39 무리 중에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40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오늘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많은 군중들의 환영을 받았던 날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즉 대추야자 가지를 들고 나와 환영하며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정결의식, 성전 방문, 골고다, 새 예루살렘 등)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세 번째 (마지막) 방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때, 예수님은 5일 후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흔들는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기뻐하시지 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려주일 입성을 이루신 것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종려주일 입성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군중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로마의 개선식과 너무나 유사한 그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와 장군을 환영할 때 레드카펫을 깔고, 팡파르를 부르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개선식을 염두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은 로마황제가 이 땅의 왕이자 신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event가 연출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님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완전히 영광받으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상징은 바로 “새끼 나귀”입니다. 새끼 나귀는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당시 말은 거의 군사용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나귀는 백성들이 항상 사용하는 가축이었습니다. 나귀는 위엄도 없고, 용맹스럽지도 않고, 불품도 없고, 체력이나 달리기에 뛰어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항상 주인 곁에서 우직하게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 나르는 충성스런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이 바로 이런 **겸손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나귀에게도 조건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여야만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만 온전하게 드린바 된 나귀’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를 섬기는 우리가 예수님께 마땅히 드릴 **‘독점적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헌신된 사람입니다. 또한, 새끼 나귀는 경험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과 경험 많은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어떤 면에서는 바보스러운 우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려고 하실 때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질그릇”)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고 온 천하에 선포하십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독점적 선택’**을 하셨음을 잘 나타내시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아무개는 내가 쓸거야. 너희는 건들지 마.”** 라고 세상에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려주일 입성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는 것이 **축복이요 특권을** 보여줍니다. 군중들을 꾸짖으라는 바리새인의 요구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 말씀산책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이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요, 초청임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섬김과 사역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와 공동체와 세상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축복의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충성”과 “헌신”**은 부름받은 자들의 가장 으뜸되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어떤 영광을 얻었습니까?** 이 나귀는 하나님인 예수님을 등에 모신 나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 나귀는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놀라운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멋진 백마도 받지 못한 영광을 이 나귀는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나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말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스러움과 헌신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주님을 목상하는 고난기간에, 우리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신 것을 닮아, 나귀와 질그릇과 같은 자들 충성스러운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 목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1. 종려주일 입성의 이미지 중에 가장 내게 와 닿은 이미지를 목상하고 나누어 보세요.
2.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3. 나는 2번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질그릇과 나귀와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새롭게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 파송찬양

###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훈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YouTube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찬식 및 세례/입교식

- 오늘 예배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오늘 2부예배 중에 세례/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세례 : 이찬규, 입교 : 김경윤

##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월 11~16일 6:30AM (월~금: ZOOM / 토: 본당)

## 성금요일예배

- 4월 15일(금) 오후 7:30, 본당  
- 이번주 청년 기도모임은 성금요일예배로 모입니다.

## EM(Lifeway) 후원 기금 마련 세차

- 4/16 9AM~2PM, 교회 주차장  
- Micah 6 (노숙자에게 식량 제공하는 식품 지원  
복지 푸드뱅크) 후원  
- 티켓 판매 (3주간, \$15)  
- 청년부도 EM을 도와 세차와 노숙자 섬김 사역  
을 함께 합니다.



(세차후미 자원 신청 링크)

## AWAKE 종강예배

- 4월 18일 (월) 오후 7시, WCP Auditorium

## 2022년 제 1기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 김태동, 박근석, 원태연, 전혜나, 조학영, 하지수, 정희진

## 일대일 제자 양육 동반자반 모집

## 중고등부 교사 모집

- 성경공부가 영어반과 한글반으로 진행될 예정  
-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문의 : 정태균 목사 / 김광섭 집사

## 기도모임 안내

금요 청년 기도 모임 : 금요일 7시, 청년부 예배실  
토요 무릎 기도회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본당  
중보기도회(목요기도회) :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본당

## PSALM

##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금요기도모임

정기리더모임

청년목장

Good Morning 말씀산책

토요무릎기도회

주일 1pm

금 7pm (매월첫주제외)

매월 첫주 금 7pm

주중 또는 예배후

월-금 6:30am

토 6:30am

제 50권 15호

APRIL 10  
2022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전도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안혜진

anhyejin0714@gmail.com

새가족 팀장

하지수

jisujeon2015@gmail.com

## 양육과정안내

##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 -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